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29권 제3호, 2016년 12월
J Korean Soc Sch Health Vol. 29 No. 3, 156-166, December 2016
p-ISSN 1225-9608 | e-ISSN 2288-9957
http://dx.doi.org/10.15434/kssh.2016.29.3.156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 예측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김 동 희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among Multicultural Children: Systematic Review

Dong Hee Kim
College of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synthesize related studies and identify the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among multicultural children. **Methods:** The author searched Google Scholar, RISS, KISS, Naver Academic, NDSL, and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databases from August 1 to August 8, 2016. Keywords included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life, and school adjustment. **Results:** Twenty two studies, from 3,645 screened references, were included and finally analyzed. All studies were prospective studies and used regression analysis. The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among multicultural children were children's personal factors and social factors. Children's personal factors consisted of general factors, psychosocial factors, and situational factors. Social factors consisted of parental factors, family factors, teacher factors, and peer factors.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consideration of social factors as well as personal factors of multicultural children, their family, teacher, and peers is needed to improve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Key Words: Multiculturalism, School adjustment, Systematic review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취업 등을 위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자녀는 2008년을 기준으로 약 19,000명에 이르며 2007년에 비해 39%, 2006년과 비교해 2배 이상이 증가하였다[1]. 이렇듯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사회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시사되고 있다[2,3].

특히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 아동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4], 다문화 아동은 이중문화에 따른 문화적 격차 문제를 포함한 따돌림, 편견, 냉대 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학교에 입학하면서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혼란, 또래를 포함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의 학교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5]. 이러한 다문화 아동의 학교

Corresponding author: Dong Hee Kim
College of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55 Dobong-ro, 76 ga-gil, Gangbuk-gu, Seoul 01133, Korea.
Tel: +82-2-920-7727, Fax: +82-2-920-2091, E-mail: dhkim@sungshin.ac.kr

- 이 논문은 2014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This work was supported by Sungshin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14.

Received: Nov 1, 2016 / Revised: Nov 28, 2016 / Accepted: Dec 2,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적응의 어려움은 탈학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2010년 다문화 아동의 학교별 탈학교 비율은 전체 다문화 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이 14%, 중학생이 16%, 고등학생이 30%로 나타났으며 전체 초, 중, 고등학교의 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더 나아가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의 사회부적응으로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은 그 의미가 크다[7].

이렇듯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가 늘어나면서 학교적응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한 교육적 과제의 해결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5,8]. 다문화 아동들도 일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하루의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적합한 성장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의 근간이며[3,8], 더 나아가 다문화 아동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규범과 역할을 습득하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9].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3]. 하지만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질적 연구[10,11]와 실태 조사[12-14]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3]. 또한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 요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학교보건 관련 특성이 함께 고려되도록 통합적으로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체계적 문헌고찰은 국내의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관련요인에 대한 일차연구를 합성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입 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예측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3. 용어정의

학교적응은 일반적으로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학생이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범, 질서 등의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15] 학교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편안하고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7].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술한 체계적 고찰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선정기준

본 연구는 최신의 연구결과를 반영하고자 2006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10년간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로써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 전문을 볼 수 있는 논문 가운데,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요인 혹은 결정요인에 대해 보고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3. 문헌검색

본 연구는 2016년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인터넷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검색에 사용된 주제어는 연구대상으로 '다문화', '청소년', 연구주제로 '학교생활', '적응'이었다. 검색엔진은 구글학술검색, RISS, KISS, 네이버학술검색, NDSL, 국회도서관을 이용하였다.

4. 분석 문헌 선택 절차 및 문헌의 질 평가

문헌검색의 최초 단계는 연구자 1인이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그 후 문헌 선택은 연구 모임을 통해 2명의 연구자가 문헌검색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다. 분석 문헌의 질 평가는 Karunananthan 등[16]의 도구를 기반으로 Joe 등[17]이 개발한 질 평가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실험연구를 제외한 연구설계 및 방법론에 대해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에 대해 1점부터 4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연구대상자의 명확한 기술, 대상자선정/배제기준의 서술, 대상자의 대표성, 연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의 기술, 통계방법의 적절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모임 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추후 체계적 문헌고찰의 경험이 있는 타 연구자에게 자문을 얻는 형식으로 문헌을 선택하였다.

5. 자료추출

우선 본 연구를 위한 자료추출 시 선택기준은 다음과 같다. 검색된 논문 가운데 연구대상자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다문화 아동인 논문을 선별하였고, 각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한 일차연구를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 배제기준으로는 새터민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정책보고서 및 학위논문의 형식인 논문, 그리고 연구방법이 메타분석, 고찰연구, 관찰연구인 논문은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 문헌검색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주제어로 검색된 논문은 총 3,645편이었으며 본 연구의 자료추출 기준에 따라 연구주제 및 대상이 적절한 논문 98편이 일차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동일한 논문과 관련요인 분석의 요건으로 회귀분석, 경로분석과 구조모형방정식 방법이 아닌 통계분석 기법을 이용한 논문 76편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22편이 최종 선별되었다(Figure 1).

6.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제목, 저자, 출판연도, 대상연령, 대상자수, 연구 지역, 부모 출신국가, 분석방법, 관련변수, 도구 등으로 구성된 코딩표를 이용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고 분석하였다. 추출된 학교 적응 관련요인은 개인 자원과 사회 자원으로 나누어 범주화 하였고 하위요인들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분석 문헌의 특성

본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분석된 일차연구는 총 22편으로써 모두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표되었고 전향적 연구였다. 포함된 일차연구의 대상자는 다문화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까지였으며 연령은 8세부터 19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13.5세였다. 대상자의 규모는 최소 47명에서 최대 4,728명이었으며 모두 2개 이상의 학교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다문화가정의 부모 출신국은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의 순이었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연구도 11편으로 50.0%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일차연구는 대부분이 회귀분석으로 자료분석을 하였고(68.2%) 경로분석(18.2%), 구조방정식모델(13.6%)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포함되었다(Tables 1, 2).

2.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 측정도구

포함된 연구 중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측정도구는 학교생활적응, 학교부적응, 학교적응유연성 등 다양하였으며 해당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60~.99의 범위로 확인되었다(Tabl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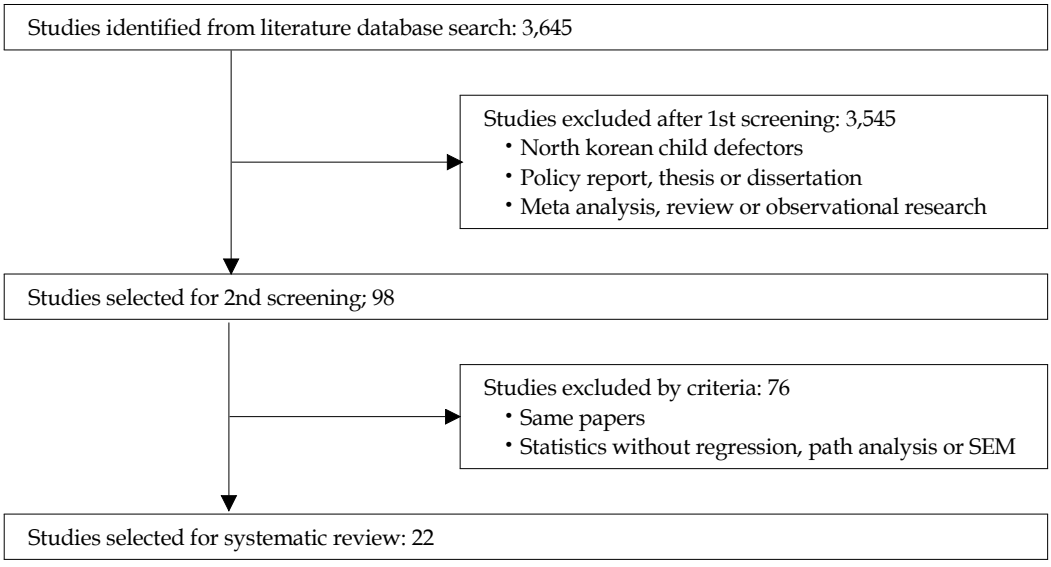

Figure 1. Study selection process for systematic review.

Table 1. Quality Assessment of the Included Studies

Variables	Categories	n (%)	Mean (range)
Year of publication	2010	4 (18.2)	
	2011	7 (31.8)	
	2012	4 (18.2)	
	2013	4 (18.2)	
	2014	2 (9.1)	
	2015	1 (4.5)	
Source of article	Journal	22 (100.0)	
Research design	Cross-sectional research	22 (100.0)	
Sample	Ages of subjects (year)	22 (100.0)	13.5 (8~19)
	Sample size per study		467.2 (47~4728)
	Sample drawn from more than one site		
Country of multicultural samples (multiple choice)	Vietnam	8 (36.4)	
	Philippines	9 (40.9)	
	Japan	10 (45.5)	
	Mongolia	3 (13.6)	
	China	11 (50.0)	
	Indonesia	2 (9.1)	
	Thailand	4 (18.2)	
	Others (India, Bangladesh, Kazakhstan etc.)	8 (36.4)	
	Not reported	11 (50.0)	
Data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15 (68.2)	
	Path analysis	4 (18.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 (13.6)	

3.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요인

본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한 결과(Tables 3, 4), 다문화 아동의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의 두 가지 요인으로 크게 분류가 되었다.

우선 다문화 아동의 개인적 자원의 경우는 아동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과 학업성취도, 심리사회적 요인인 자아존중감,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대처 행동, 한국문화의 수용정도, 사회적 능력, 그 밖에 의사소통 능력, 외모에 대한 차이 인식 정도와 외모만족도, 유행 동조성(fashion conformity), 가정환경 내 방임(negligence) 정도, 문화변용 스트레스(acculturation stress), 이중문화적 특성으로 이중문화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수용, 그리고 부모, 가정환경, 친구, 학업, 교사 및 학교생활, 주변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 등이 예측인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자원의 경우는 부모 관련 요인에서 어머니의 학업수준, 부모-자녀 관계, 양육 스트레스, 양육태도 특히 어머니의 온정성, 방임/허용적 태도와 아버지의 거부/제재, 방임/허용적 태도, 자녀에 대한 관심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황적 요인인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운데 지각된 차별감, 두려움, 문화충격이 예측인자였다. 또한 가족적 요인에는 경제수준,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s), 부모의 결혼상태,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 부모갈등이 있었고, 교사 요인으로 교사-학생 관계, 교사지지, 공감적 이해, 존경, 수업,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있었으며, 교우 요인으로 교우관계, 그 밖에 사회적 지지와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 대인신뢰, 규범이 포함되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연구한 일차연구를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하였다.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총 3,645편의 관련 문헌이 검색되었고, 선정기준에 적합한 22편의 일차연구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체계적 문헌고찰에 선정되어 포함된 일차연구는 2010년부터 2015년에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이후 최근에 국내 다문화가정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활발히 진행

Table 2. Summary of the Included Studies

No	First author (year)	Sample				Analysis
		Size	Grade	Residential district	National origin of parents	
1	Kim, M. K. (2015)	179	ES 5th~HS 3rd	Seoul, Gyeonggi, Chungchoeong, Jeolla	Vietnam, Philippines, Japan, Mongolia, China	Regression
2	Kim, A. Y. (2011)	486 (MC 251, SC 235)	ES 3rd~6th	Seoul, Gyeonggi	-	Regression
3	Kim, Y. S. (2012)	274	ES 4th~6th	Gyeonggi	-	Path analysis
4	Kim, H. W. (2010)	47	MS 1st	Whole country	-	SEM
5	Kim, H. M. (2013)	4728 (MC 65, NMC 4663)	ES 4th & MS 1st	Whole country	-	Regression
6	Nam, S. A. (2011)	152	ES 4th~MS 1st	Jeonam	Japan, Philippines, China, Thailand, Vietnam, Indonesia	Regression
7	Moon, Y. H. (2010)	110	ES 3rd~6th	Jeonbuk	China, Philippines, Japan	Regression
8	Baik, J. S. (2013)	274	ES 5th~MS 3rd	Jeonam	Philippines, Japan, China, Vietnam, Canada, Pakistan, Sri Lanka, Jamaica, Thailand, Mongolia etc.	Regression
9	Baik, J. S. (2014)	555 (MC 275, NMC 280)	ES 5th~MS 3rd	Jeonam	-	Regression
10	Seo, B. J. (2012)	129 mother & child dyad	ES 4th~6th	D city, K province	China, Vietnam, Japan, Philippines, Thailand	Regression
11	Oh, K. W. (2011)	120	MS~HS	Seoul, Gyeonggi	Japan, China, America	Regression
12	Lee, W. J. (2014)	536 (MC 125, MC/SC 209, SC 198)	ES 5th~6th	Gyeonggi	-	Regression
13	Im, S. M. (2012)	-	MS~HS	Gwangju, Jeonam	-	Path analysis
14	Jeon, B. J. (2012)	185	ES 4th~MS 3rd	Chungchoeong	China, Japan, Philippines, Vietnam	Regression
15	Jeon, S. J. (2013)	209	ES 5th~MS 3rd	Chungbuk	China, Japan, Philippines, Vietnam	Path analysis
16	Jeong, O. H. (2013)	210	ES 3rd~6th	Seoul, Gyeonggi, Incheon	-	Regression
17	Han, H. R. (2010)	120	MS	Seoul, Gyeonggi	Japan, China etc.	Path analysis
18	Choi, Y. M. (2012)	308 (MC 135, NMC 173)	MS	Gyeonggi	-	Regression
19	Choi, S. B. (2011)	492	ES	Daegu	-	SEM
20	Jang, D. H. (2010)	197	ES 1st~6th	Daegu, Gyeongbuk	Japan, China, Philippines, Vietnam, Thailand	Regression
21	Toodoi Ariunsanaa (2011)	145	ES~HS	Seoul, Gyeonggi	Mongolia	Regression
22	Kim, J. B. (2011)	703 (MC 325, teacher 378)	ES 2nd-6th	Seoul	-	SEM

ES=elementary school; MS=middle school; HS=high school; MC=multicultural; SC=single cultural; NMC=non-multicultural.

Table 3. Variables of School Adjustment among Multicultural Children

No	First author (year)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Predictors
			Measurement of school adjustment	Reliability of measurement	
1	Kim MK. (2015)	•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tress, depression, anxiety) • Parent-child relationship (communication styles, authoritarian parenting) • Coping strategies (social support, problem-solving, avoidance)	Korean Children · Adolescents Panel Research	.636	• Mothers' education level • Parent-child open communication • Social support as a coping strategy
2	Kim AY. (2011)	• Family strengths • Self-esteem • Peer-victimization • Daily hassles coping behaviors (positive, negative coping)	Kim AY. (2002). school adaptation scale	.84	• Self-esteem • Daily hassles coping behaviors (positive coping) • Family strengths
3	Kim YS. (2012)	• Students' potential abilities • Parents' relationships • Schoolmates' relationships • Teachers' relationships	Lee GM. (2008). school adaptation scale	.898	(Male students) • Students' potential abilities • Parents' relationships • Schoolmates' relationships • Teachers' relationships (Female students) • Students' potential abilities • Teachers' relationships
4	Kim HW. (2010)	• Teacher factors (empathic understanding, positive relationships, respect, instruction) • Students factors (student's psychologic character, sociability, schoolmate relationship)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5). school maladjustment questionnaires	-	• Teacher factors (empathic understanding, positive relationships, respect, instruction) • Student factors (student's psychologic character, sociability, schoolmate relationship)
5	Kim HM. (2013)	• Multicultural family background (multicultural family status) • Ego-resilience • Parenting behavior	Jung HS (2009). school adjustment scale	.868	-
6	Nam SA. (2011)	• Parenting attitude	Park MS (2007). school adjustment scale	.60~.73	• Parenting attitude (maternal warmth, maternal permissiveness/ nonintervention, paternal rejection/restriction, paternal permissiveness/ nonintervention)
7	Moon YH. (2010)	• Bi-cultural attributes	Lee SP. (1990). school adjustment scale	.77	• Bi-cultural attributes (awareness of bi-culturalism, positive acceptance)
8	Baik JS. (2013)	• Teacher support • Self-esteem • Communication skill • Acculturative stress	Park HS. (1998). school resilience scale	.86	• Teacher support • Self-esteem • Communication skill • Acculturative stress
9	Baik JS. (2014)	• Self-esteem • Communication skill • Social support	Park HS. (1998). school resilience scale	.86	• Self-esteem • Communication skill • Social support
10	Seo BJ. (2012)	• Satisfaction of marital relationships	Shin KH (2010). school adjustment scale	.99	• Satisfaction of marital relationships
11	Oh KW. (2011)	•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 Social competence	Park KH. (2008). school life satisfaction scale	.64~.83	•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 Social competence

Table 3. Variables of School Adjustment among Multicultural Children (Continued)

No	First author (year)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Predictors
			Measurement of school adjustment	Reliability of measurement	
12	Lee WJ. (2014)	• Parent-child relationship	Kim YR. (2000). school adjustment scale	.96	• Parent-child relationship (mother-child relationship, father-child relationship)
13	Im SM. (2012)	• Risk factors • Protective factors	Kim TH. (not reported). school resilience scale	.929	• Risk factors (negative rearing attitude, parent conflict) • Protective factors (self-esteem, positive attitude, democratic rearing attitudes, Interest in children, peer support, teacher support)
14	Jeon BJ. (2012)	• General features • Social capital • Acculturation stress	Lee MS. (2008), school adaptation scale	.69	• General features (mother's Korean ability, parents' marital status, academic level, economic level) • Social capital (network of social capital, interpersonal trust of social capital, norm of social capital) • Acculturation stress
15	Jeon SJ. (2013)	• Negligence • Acculturative stress • Self-esteem	Lee KM. (2008). school adaptation scale	.89	• Negligence • Acculturative stress • Self-esteem
16	Jeong OH. (2013)	• Mothers' cultural adaptation stress • Parental stress	Lee HJ. (1999). school adjustment scale	.88	• Mothers' cultural adaptation stress (perceived sense of discrimination, fear, cultural shock) • Parental stress (child-rearing stress, economic problem)
17	Han HR. (2010)	• Appearance satisfaction • Appearance consciousness • Fashion conformity	Kum MJ. (2006). school adjustment scale	-	• Appearance satisfaction • Appearance consciousness • Fashion conformity
18	Choi YM. (2012)	• Stress (related to parents, family background, friends, academy, teachers & school life, social environment)	Park, H. S. (1998). school resilience scale	.66~.79	• Stress (related to parents, family background, friends, academy, teachers & school life, social environment)
19	Choi SB. (2011)	• Teacher relationship • Parents relationship • Peer relationship	Subscales of Lee JS. (2009). school life adaptation & Ko KE. (2010). school life adaptation	.899	• Teacher relationship • Parents relationship • Peer relationship
20	Jang DH. (2010)	•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Cultural characteristics • Environmental factors	Kim MH. (2002). school maladjustment scale	.652~.864	•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mother's academic background, father's nationality, family's financial condition, getting minimum cost of living from government) • Cultural characteristics (physical difference of appearance) • Environmental factors (peer relationships, academic attitude)
21	Toodoi Ariunsanaa (2011)	• Multicultural factors • Social support	Jung HY (2006). school adjustment scale & Ryu JS (2003). school life adaptation scale	.89	• Social support (support from teachers, peers, and family members)
22	Kim JB. (2011)	• Teacher'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 Student-teacher relationship • Language ability	Development of measurement based on Un SK. (2010)	.90	• Teacher'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mediated by student-teacher relationship) • Language ability

Table 4.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among Multicultural Children

Factors	Categories		Predictors
Personal factors	General factors		• Gender • School academic record
	Psychosocial factors		• Self-esteem • Daily hassles coping behaviors (positive coping) • Social competence
	Situational factors		• Communication skill • Physical difference of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appearance consciousness •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 Fashion conformity • Acculturation stress • Bi-cultural attributes (awareness of bi-culturalism, positive acceptance) • Stress (related to parents, family background, friends, academy, teachers & school life, social environment)
Social factors	Parent factors	General factors	• Mothers' educational level • Economic level • Parenting attitude (maternal warmth, maternal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paternal rejection/restriction, paternal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 Parent-child relationship • Parenting stress
		Situational factors	• Mother's Korean (language) ability • Mother's cultural adaptation stress (perceived sense of discrimination, fear, cultural shock) • Sense of discrimination
	Family factors		• Family strengths • Parents' marital status • Satisfaction of marital relationships • Parental conflict
	Teacher factors		• Student-teacher relationship • Support from teachers • Empathic understanding, respect, instruction • Teacher'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Peer factors		• Peer relationships
	Others		• Social support • Social capital (network of social capital, interpersonal trust of social capital, norm of social capital)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18]. 또한 학술지 출처는 융합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과 심리 분야, 사회 및 가족 복지가 주를 이루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일차연구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아동이었다. 다문화 아동의 부모 출신국은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을 포함해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다문화 아동이 서로 다른 이중문화를 경험하고 있어 일차연구들 간의 결과 비교 시에 대상자 특성에 따른 동질성이 고려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국내 70% 이상의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부모 출신국이 우리와 외모나 문화가 비슷한 일본, 중국 등이지만 저개발 아시아 국가로부터 이주해 오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사회,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과 함께 출신국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관한 수용성, 다양성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2,14].

또한 분석에 포함된 일차연구에서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학교생활 적응[19] 또는 학교부적응[1,20], 학교적응유연성[21-23]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요인간의 상관성 및 영향력 정도를 비교분석 하는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들 개념은 수업 및 학습활동에의 적응, 교사 및 교우 관계에의 적응, 학교규칙의 준수 등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주요 요인으로 포함하고 있었다[8].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요인을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일차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 및 분석한 결과,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 예측요인은 양적 연구방법론에 기반을 두고 아동 개인의 요인과 부모, 가정, 학교, 친구 등이 포함된 사회 관련 변인들을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었다.

우선 다문화 아동의 개인 요인 가운데 일반적 특성은 성별과 성적이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일차연구[3]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별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 교우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 교사와의 관계만이 관련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섬세한 여학생들이 교사로부터의 격려와 관심을 바라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교사가 성별에 따라 다문화 아동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예비교사에 대한 교육과 현직교사에 대한 연수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3]. 그리고 학교적응은 사회, 정서적 적응 및 대인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와 학습노력을 포함하는 학업적 적응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학업 성취도를 반영하는 성적이 학교적응에의 관련 예측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24]. 결국 다문화 아동이 친구 및 교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학생으로서 수행해야 할 책임인 학업을 이행하며 주요발달의 장인 학교에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성적 등 다문화 아동의 학업 수준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22].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능력인 자아존중감, 긍정적 대처방식, 사회적 유능감 같은 심리사회적인 측면이 학교적응과 관련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고[8,21-25]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해 긍정적 대처행동을 하며[8]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경우[1,26] 학교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요인들은 일반 아동들의 학교 적응에도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학교 적응에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고 있다[8]. 다문화 아동의 경우 자아존중감, 대처방식, 사회적 유능감 발달을 방해하는 위험 요인이 일반 아동에 비해 많을 수 있으므로[1,4,8,26] 이들의 긍정적 사회 심리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다문화 가정 아동이라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요인 중 학교적응 관련 예측인자로써 의사소통 능력이 있었고[21,22], 다문화 아동의 외모에 대한 차이 인식 정도와 외모만족도가 유행 동조성(fashion conformity)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18]. 이와 관련하여 부모가 외국인이어서 생길 수 있는 의사소통 발달 문제를 고려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외모의식성이 높은 다문화 아동들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특히 동조성이 강한 청소년기 아동의 경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또래와 비슷하며 유행에 뒤지지 않도록 돕는 것 또한 학교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이 주체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한국문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26]. 또한 다문화가정에 존재하는 상이한 두 문화의 접촉에 따라 해당 문화들이 변화하는 문화변용을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acculturation stress)[21,25]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다문화 아동은 이중문화적 특성에 부적응하게 되고 어느 한쪽 문화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까지도 경험하므로[5]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 아동의 이중문화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수용을 높여 학교생활에의 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모, 가정환경, 친구, 학업, 교사 및 학교생활, 주변 환경에 대한 다문화 아동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 등이 학교적응에 부적 심리사회적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27,28]. 청소년기는 시기적으로 발달적 위기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인데, 특히 다문화 아동의 경우 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더해져 스트레스로 인한 위기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아동의 스트레스 관리가 강조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아동의 사회적 요인 가운데 부모 요인은 일반적 요소와 상황적 요소로 나타났다. 일반적 요소 중 두드러진 내용은 양육과 관련된 변수였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교적응에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였고[9], 거부, 방임 등 부정적 양육 태도나 부모자녀 관계는 학교적응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4,9]. 그러므로 다문화 아동의 부모들이 긍정적인 양육 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본 문헌고찰 결과에

서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부모 교육수준, 경제 수준 등이 고려되어져 이들 가정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2,12,20,27,29].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다른 문화를 바탕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타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29]. 하지만 본인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과 지각된 차별감으로 인해 적응은 더욱 어려워지고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양육 태도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주며 아동의 학교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30]. 또한, 가족 관련 요인으로 나타난 가정 내에서 부부역할에 대한 상이한 기대, 가사노동의 분담문제를 포함한 갈등과 아동의 양육에 대한 태도나 관심의 차이가 부부 갈등이나 결혼의 불만족으로 나타나고 이는 결국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어 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의 적응에도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29]. 부모와 가족요인으로 나타난 문제들은 다문화 가정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언어 문제, 문화 적응 스트레스, 가족 갈등 등 다문화 가정의 상황적 문제들이 서로 영향을 주며 부정적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정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중재해야 다문화 아동의 적응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학교 관련 요인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3], 교사의 지지[21]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공감적 이해 및 교우 관계 형성[1,3,19,27,31]이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예측인자로 나타났다. 현재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교사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 등의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다문화교육을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생활지도 및 상담, 다문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 개선,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습 자료의 개발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14,31]. 또한 다문화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습 부진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교우 간의 관계 형성에 실패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31].

더불어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해 사회 맥락적 관련요인들을 근간으로 다문화가정 및 아동과 우리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총체적인 접근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은 단일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관련요인들이 상호 연관되는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24].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에 포함된 일차연구들 간의 결과 비교 시에 대상자 부모 출신국 등 이질적 특성에 따른 문제들이 고려되지 않았고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가 다양해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요인 간의 상관성 및 영향력 정도를 비교분석 하는데 제한적이었다. 이에 추후 관련 연구 시 다문화 아동에 대한 대표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연구방법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며, 연구 간 다문화 아동의 정확한 정의를 통해 동질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것을 제언한다. 그리고 학교적응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합하여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정확한 규명 및 측정이 필요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요인에 대한 22편의 일차연구를 통합하고 분석한 체계적 고찰연구로써 다문화 아동 및 가족, 학교와 사회 관련 요인들에 대한 통찰과 우리 사회의 다문화 아동에의 접근 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규명되어야 할 부분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 예측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반복하여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학교보건의 실정에 적합한 중재적 개입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1. Kim HW, Hong S, Kwon D. The school maladjust factor analysis of multicultural family's students.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010;26(3):21-37.
2. Kim MK, Kim HY.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coping strategies on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15;20(2):367-385. http://dx.doi.org/10.13049/kfwa.2015.20.2.367
3. Kim YS, Kim HJ, Shin CK. The effects of the potential abilities and personal relationships of multicultural families' students on their adjustment to school: The case of elementary students in kyunggi province.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012;25(2):161-185.
4. Lee WJ, Kim S. Study of multicultural children's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3):1367-1374.

http://dx.doi.org/10.5762/KAIS.2014.15.3.1367
5. Moon YH, An EM. The influence of bi-cultural attributes of children from female marriage immigrants on school adjustment -focused on northern cholla province rural area-.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2010;33(6):47-68.
6. Lee JB, Kang SW, Kim H, Lee HY, Seo YM. A research on the educational status about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based on the families of international marriage-. Research Report.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8 December. Report No.: KEDI2008-12.
7. Ladd GW, Kochenderfer BJ, Coleman CC.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7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1996;67(3):1103-1118.
8. Kim AY, Kim SI. Comparisons of psychological factor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between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and from general famili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11;25(4):853-873.
9. Nam SA, Baik JS.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on school adjustment and self-esteem of child and early adolescent from multicultural families. Youth Facility & Environment. 2011;9(1):3-12.
10. Kang IC. A study into the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middle school students in rural areas. Youth Facility & Environment. 2015;13(3):155-166.
11. Jin CH. Analysis of school adaptatioin proc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Global Youth Studies. 2011;1(1):39-70.
12. Kim JW, Lee HY, Bae UJ, Hu CS. A study on the conditions of educational welfare for the foreign workers' children in South Korea. Research Report.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5 December. Report No.: KEDI2005-05.
13. Cha YR. A study on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01. p. 1-82.
14. Karunananthan S, Wolfson C, Bergman H, Béland F, Hogan DB. A multidisciplinary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frailty: overview of the methodology used by the Canadian initiative on frailty and aging.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2009;9(1):1-11. http://dx.doi.org/10.1186/1471-2288-9-68.
15. Joe SY, Ko EJ, Kim HH. Research on the health behaviors of military personnel: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Military Nursing Research. 2011;29(1):124-134.
16. Han HR, Kim HS. The effects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appearance consciousness on school adoption among the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fashion conformity-. Korean Education Inquiry. 2010;28(2):61-76.
17. Seo BJ, Park ST.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ulti culture family's marital relationships on children's adaptation of school life.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2012;22(1):127-155.
18. Jang DH, Shin HS. The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school mal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Youth Research. 2010;17(3):123-147.
19. Baik JS, Kim J, Yu YH. A study on affecting factors on school resilience of adolescent from multicultural families. Youth Facility & Environment. 2013;11(4):157-169.
20. Baik JS, Kim J, Jung HK.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factors, self-esteem, communication skill,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resilience of adolescents-comparison between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 adolescents in Jeonnam province-. Youth Facility & Environment. 2014;12(1):127-141.
21. Im SM, Shin JS, Son JH.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of multicultual families adolescents's school resilience for the multicultual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012;17(10):175-183. http://dx.doi.org/10.9708/jksci/2012.17.10.175
22. Jeon BJ.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acculturation stress on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2;10(11):29-38.
23. Jeon SJ, Yoon H. Effects of neglect, acculturative stress, and self-esteem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013;24:153-179.
24. Oh KW.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their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and adaptation to Korean school lif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011;49(9):83-97.
25. Choi YM, Lim ST.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with multicultural family background. Journal of Evaluation on Counseling. 2012;5(2):15-26.
26. Kim SG. The moderating effect of protective factors on school resilience of korean adolescents in pover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09;16(10):103-123.
27. Jeong OH. Research on influence of mothers'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parental stress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2013;10(2):22-37.
28. Kim ES, Kim DH.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perceived health status of married immigrant women. Korean Society of Public Health Nursing. 2015;29(2):344-353.
29. Kim JB, Tak HJ.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school adjustment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y: mediating roles of students-teacher relationship. Korea Youth Research. 2011;18(10):161-185.